

사망자 중 안전사고 비율 첫 10% 이하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11일 발표한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연도별 안전사고 사망자수(전체 사망자 중 비중)는 2015년 2만 8784명(10.4%), 2016년 2만 2182명(10.0%), 지난해 2만 154명(9.5%)으로 감소 추세다.

분야별로 보면 교통사고, 자살 등에서 사망자 수가 감소한 반면 화재는 최근 3년간 249명, 291명, 338명으로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할 때 화재, 범죄, 생활안전은 양호한 수준이다.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분야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다만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대부분의 특별·광역시(6개소)와 자치구(52개소)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안전지수 분야의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건수는 감소하는 등 지역 전반적인 안전수준은 개선되고 있었다.

사망자수(교통+화재+자살+감염병)는 2016년 2만 288명, 지난해 1만 912명, 발생건수(화재+범죄+생활안전)는 2016년 72만 242건, 지난해 69만 389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 1등급 지역은 ▲교통사고는 서울·경기 ▲화재는 인천·경기 ▲범죄는 세종·전남 ▲생활안전은 부산·경기 ▲자살은 세종·경기 ▲감염병은 울산·경기 ▲자연재해는 서울·충북이었다.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을 의미한다.

반면 5등급 지역은 ▲교통사고는 광주·전남 ▲화재는 세종·충북 ▲범죄는 서울·제주 ▲생활안전은 세종·제주 ▲자살은 부산·충남 ▲감염병은 대구·경북 ▲자연재해는 인천·경북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5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에서 1등급을 차지했다. 그 중 화재를 제외한 4개 분야는 4년 연속 1등급이었다. 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이다.

제주(생활안전, 범죄)나 세종(화재), 전남(교통사고), 부산(자살)은 특정 분야에서 4년 연속 5등급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 달성시 범죄를 제외한 6개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이어 경기 의왕(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행안부,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안전사고 사망자 감소·화재 사망자 증가

자살)과 울산 울주(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가 총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차지했다. 서울 종로는 5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감염병)에서 5등급에 머물렀다.

지난해와 비교해 등급이 변화한 비율은 약 51.7%였다. 자연재해(70.4%) 분야의 등급 변화가 가장 많았고 생활안전(35.0%) 분야가 가장 적었다.

등급 변화는 대부분(76.3%) 1등

급이었다. 전북 장수(5-1등급)의 자살 분야가 최대 변화폭(4등급)을 기록했다. 인천(4-8-1등급)의 화재 분야, 서울(4-8-2등급)의 생활안전 분야, 부산(5-8-2등급)의 자연재해 분야는 최근 3년간 등급이 상승했다.

등급이 상승한 지역(62개소) 중 90%가 실제 사망자 수나 사고건수가 감소했다. 하락한 지역(64개소)의 73%는 사망자 수나 발생건수가 증가했다.

뉴스스



겨울 풍경 합박눈이 내린 11일 오후 세종시 이천동에서 우산을 쓴 한 시민이 길을 재촉하고 있다.

음주 교통사고 사망 발생 땀 최고 무기징역...처벌 강화

앞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 및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필요로 감경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했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등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에 따라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

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을 개정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또 형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했다. 이는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촬영대상자 등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불법촬영 대상을 현행 다른 사람의 신체에서 사람의 신체로 폭넓

게 개정한 것이다.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하에 촬영했으나 이후 촬영대상 의사에 반해 유포한 행위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도 상향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이 밖에 사람이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 외에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다. 최근 법원에서 성관계 동영상 컴퓨터로 재생한 후 그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재촬영한 영상물이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는데 이 역시 법정형으로 처벌의 흠결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뉴스스

중, 지하교회 급습해 기독교인 100명 체포

중국 경찰이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한 지하교회를 급습해 기독교 신자 100여명을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2013년 시진핑(習近平) 정부 출범 이후 종교탄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갈수록 교세를 확장하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강화하고 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경찰은 일요일 지난 9일 저녁 남서부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 위치한 추위(秋雨) 성약교회를 급습해 신도 100여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교회뿐 아니라 거리 곳곳과 성도들의 가정집도 급습해 신도들을 잡아들였다.

추위성약교회는 중국에서 유명한 개신교 지하교회 중 하나로, 신도는 500~800명 가량이다. 중국 개신교 교회 대부분은 당국의 통제를 피해 몰래 활동을 하지만, 추위교회는 온라인에 설교를 게재하거나 길거리에서 전도활동을 하는 등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됐다.

경찰에 체포됐다가 10일 풀려난 이 교회 집사 A씨는 현재도 경찰이 집 주변에서 24시간 대기하며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사건 당일 밤 7시에 경찰이 교회를 급습했다는 소식에 목사 자택을 방문했으나, 목사 부부는 이미 체포됐는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목사님 집은 (경찰 수색으로) 뒤집어져 있었다"며 "경찰은 우리 교회가 불법조직이며, 지금부터 어떤 집회에도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체포된 일부 신도들에게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밤 9시 이후 이 교회 신도들이 운영하는 SNS 활동 계정은 접속이 되지 않고 있으며, 교회 전화도 먹통인 상태로 알려졌다.

대서양 샌드위치 열도 근해서 규모 7.5 강진

남미와 남극대륙 사이 대서양 남단에 있는 사우스 샌드위치 열도 부근 해역에서 규모 7.5 강진이 발생했다고 중국지진태양 중심(CENC)이 11일 발표했다.

CENC에 따르면 지진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 26분께 사우스 샌드위치 열도 근해를 강타했다.

진앙은 남위 58.34도, 서경 26.54도라고 CENC는 전했다.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규모 7.1 지진이 이날 오전 2시 26분(GMT)께 사우스 샌드위치 열도 브리스톨섬 북쪽 48km 떨어진 수역에서 일어났다고 밝혔다.

USGS는 진앙이 남위 58.598도, 서경 26.466도이며 진원 깊이가 164.7km라고 발표했다.

현 시점에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에 관한 신고와 보고는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다.

사우스 샌드위치 열도는 지각과 화산 활동이 왕성해 '불의 고리'라고 부르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크고 작은 지진이 잦다.

러시아, 베네수엘라와 합동군사훈련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와의 합동 군사훈련을 위해 10일(현지시간) 전략폭격기 2대를 비롯한 군용기들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인근에 배치했다.

AP와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항공우주군 장거리 전략폭격기 TU-160 2대가 이날 대서양과 비렌츠해, 노르웨이해, 카리브해를 거쳐 1만km를 저공비행한 뒤 카라카스 인근에 도착했다.

TU-160은 재래식 무기 또는 사거리 5500km의 핵탄두 순항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다. 이른바 '블랙잭'으로 명명된다. 러시아 항공우주군 화물수송기 AN-124, 여객기 Il-62도 비행에 참여했다.

카라카스에 도착한 이들 군용기들은 베네수엘라와 합동훈련에 동원될 예정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을 "우리는 필요할 때 베네수엘라를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국가 간 존경에 기반한 관계를 지지하는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집스키 베네수엘라 주재 러시아 대사는 "군사기술 협력은 우리가 협력하는 많은 분야 중 하나"라며 "지난 몇 년 간 매우 생산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지난주 모스크바를 방문한 바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제재 대상인 베네수엘라의 주요 정치적 동맹국이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다면,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영유아건강검진 중 장애가 발견된
자립치료 중인 민혜군